

#1. 실외. 공원. 밤

어둠이 내린 공원. 노란 전봇대 불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

어떤 힘에 의해 팍 튕겨나가며 뒷걸음질 쳐지는 소녀 오민서(15, 여자)가 보인다.

씩씩대는 민서. “아아아!” 하고 다시 덤빈다. 그러나 또 다시 팍 뒤로 밀리는데 웬 막대에 의해 밀려 넘어지는 것이 보인다. 그 막대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무로 된 끝이 꼬불꼬불한 지팡이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한복을 입고 있는 백발의 할머니(70대). 상당히 안어울리는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할머니 이 밖에 안 되는가?

할머니, 탁탁탁- 지팡이를 짚으며 넘어져있는 민서 가까이로 걸어온다. 긴 머리를 산발한 민서의 얼굴에 분함이 가득하다. 원망스런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보는 민서.

민서의 눈이 글썽글썽, 눈물이 곧 쏟아질 것 같다.

민서 (외침) 계속 !@#\$%^\$\$\$ 말이에요!!!

공원 앞 큰길의 자동차가 빵!!! 클락션을 울리며 지나가 민서의 중간 말이 묻혀버린다. 민서의 외치는 얼굴 클로즈업에서 프리즈프레임.

#2. 실외. 학교-정문. 낮

비 오는 중학교 운동장. 운동장 흙 위로 굽은 빗방울들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다. 그 흙을 밟고 지나가는 교복 입은 다리들. 그 위로 민서의 나래이션이 나온다.

민서(N) 내 나이 열다섯. 삶이 꼬이기 시작했다.

학교 정문이 보여지면, 아이들을 기다리는 엄마들이 우산을 들고 서 있다. 문 앞에서 비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표정으로 서 있는 민서가 보인다.

민서(N) 갑작스레 부모님을 잃었고..

엄마와 아이들 대부분이 거의 다 빠져간 운동장. 학교 정문을 향해 신발 주머니를 우산 삼아 쓰고 뛰던 민서가 멈칫한다. 구석에 버려진 우산이 보인다. 열른 주워들어 펴보면, 망가져 절 반밖에 안 펴지는 우산. 무너져내리는 한쪽을 팔로 잡고 열른 다시 걷는다.

(Cut to) 학교 정문을 나온 민서는 빠른 걸음으로 벽을 따라 걷는데 옆에 붙은 초등학교 정문이 나오자 쑥 들어간다.

초등학교 건물 현관 앞.

민준(9살, 남)이 쪼그려 앉아 있다. 민서를 올려다보며 헤 웃는 민준.

#3. 실내·편의점·낮

딸랑 편의점 문이 열리면, 알바생이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민준이 먼저 쭉 들어온다.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는 민서. 알바생과 눈인사를 한다. 민서의 모습에 알바생은 집에 가려고 직원 앞치마를 벗는다. 민준은 과자 진열장을 살피고, 민서는 직원 탈의실로 간다.

편의점 몽타주들
일하고 있는 민서/
편의점 구석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민준/
일 하다 틈틈이 민준을 챙기는 민서

#4. 실내. 집. 밤

-현관문 밖
도어락을 누르려는 손이 멈칫한다.

민서 (속삭이며) 빨리 들어가야돼.

민주이 고개를 끄덕인다.

삑삑삑삑 비번을 누르고 문이 열린다.

-집 안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던 집 안. 도어락 해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양말바람의 민준이 쑥 들어와 우다다 방으로 달려 들어가고 땀깍 문을 잠근다. 민서가 민준의 신발을 들고 들어와 자신의 신도 벗는다.

패거리 1(E) 요이 우리 민준이 왔네~

패거리2(E) 이제 오면 어떡해 진작에 담배 떨어졌는데

패거리3(E) 이리와바바

먼저. 무표정으로 거실로 들어가면.. 작고 지저분한 거실에 3명의 학생들(16, 남2, 여3)이 널부

러져 있다. 담배 연기로 가득한 거실. 맥주 소주병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고 쓰레기들도 많다.

패거리2(E) 담배.

소파에 앉아 있던 패거리2가 민서의 팔을 흙 잡아 끈다. 끌려가지만 이내 뿌리치는 민서. 여전히 무표정으로 서 있다.

민서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민서, 말하면서 주방 쪽을 힐끗 본다. 누군가를 찾는 느낌.

그때 민준이 들어간 방 문이 열리며 민준이 나온다.

민준 (주춤주춤) 누나...

민준의 뒤로 옷을 여미면서 나오는 화니(17, 여) 와 용(19, 남).

민서가 뒤돌아 이들을 보고는 얼른 민준을 자신의 앞으로 끌어온다.

민서 방에는 안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화니 그래서 나왔잖아.

용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화니 옆으로 온다. 화니에게도 물을 건네는 용. 이들을 바라보는 무표정의 민서. 화니는 물을 받아 마시며 민서를 째려본다. 둘의 모습에서 프리즈프레임.

민서(N) 꼬불꼬불. 한번 꼬인 인생은 계속 꼬이는거라는 걸 알았다.

휘리릭 지금까지의 화면들이 빠르게 되감기 되다가 갑자기 Black.

자막이 뜬다. <몇 개월 전>

5. 실내.외/ 학교-소각장/ 회상 시퀀스

-학교 교실.

학생들이 떠들고 있다.

민서(N) 돈을 벌어야만 했고, 민증을 위조한 것이 시작이었다.

여학생 한명이 교실에 들어와 엎드려 자고 있던 민서를 깨운다.

민서 고개 들어보면 불안한 표정의 여학생.

여학생 야.. 큰일났어.

민서 ...?

여학생 민증.. 화니선배 담당이었나봐..
민서 화니선배?
여학생 3학년 그.. 고등학교 자퇴한 오빠랑 사귀는..
민서 그걸 어떻게 그 선배가 알아? 1반애가 만들어주는거라며.
여학생 나도 그런줄 알았는데.. 저번부터 민증은 앞으로 자기가 맡겠다고 했었대..

여학생, 민서에게 쪽지를 건넨다. <3시 소각장>이라고 쓰여있다.

-소각장

교복을 대충 입은 학생들 셋이 서 있고, 화니는 넓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 사이에 민증을 끼고 손장난을 치고 있다. 용은 사복을 입고 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민서가 다가온다.

화니 졸라 착해빠진 얼굴인데.. (민증을 건네주며) 어따 써먹을라고?

민서, 민증을 받으려고 손을 뻗는데 화니가 훅 다시 팔을 거둔다.

민서 쓸 데가 있어서...
화니 어따 쓸거냐고 물었잖아. 한국말 못해?

화니의 말에 다른 패거리들이 같이 비웃는다.

민서 돈 벌어야돼서...
화니 너 엄마는 죽고 아빠는 날랐다며?
민서 ...
화니 졸라 불쌍한건 알겠는데~ 우리도 이런걸 쉽게,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니거든~
민서 ...
화니 어디서 일할거야?
민서 ...
화니 어디서 일할거냐고
민서 ...아직 잘..

화니, 탁 하고 의자를 발로 차며 일어난다.

그때 담배를 바닥에 탁 던져버리는 용. “씨발” 하고 읊조린다. 모두의 시선이 용에게 향하면..

용 신발 벗어.

민서, 영문을 몰라하며 자신의 신발을 쳐다본다. 그리고 용의 신발을 보는데 둘이 똑같은 신발이다.

용 하나.

민서 (안절부절)
용 (다가오며) 둘.
민서 (신발을 벗기 시작한다)
용 셋.

민서가 벗은 신발을 발로 차 소각장에 던져버린다.

용 존나 기분 더럽네.

용, 흑 소각장을 뜯다. “오빠!” 하고 부르는 화니.
싸인을 주자 패거리 셋이 민서에게 달려들어 밟고 때리고 두들겨 팬다.

화니 야. 니 월급 절반은 내 뜻이다.
꼬박꼬박 가져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짜증난 표정으로 민서를 내려다보는 화니의 얼굴이 현재 얼굴로 바뀐다.
-회상 시퀀스 끝

#4 실내. 집. 밤 -계속

화니 내일부터 방학이잖아 민서야~
민서 ...
화니 두 타임 연속으로 일 할거잖아.
민서 ..
화니 맞아 안 맞아?
민서 ...
화니 대답해라.
민서 (고개 끄덕)
화니 그럼 두배인것도 맞지?
민서 ...
화니 우리 여행가려고 돈 모으고 있단 말야. 빨리 월급날 오면 좋겠다~

입을 꾹 다문 민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다. 패거리들은 시끌시끌 잡담을 하다가 “헐 별 써 1시반이야!” 하더니 “집에가자. 집에가자” 하면서 일어난다. 페브리즈를 온 몸에 다들 칙칙 뿌리고 민서네 집에서 나간다. 나가며 민서를 한 번씩 툭툭 친다. “내일봐~”

#6. 실내. 편의점. 오전

민서, 민준을 데리고 출근한다. 사장(30중반, 남)은 이미 출근해서 라면을 먹고 있다가 민서의 인사를 받아준다. 뺨질한 백수건달 느낌의 사장. 가방을 창고에 놓고 나오는데 잔소리를 한다.

민서,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라면을 후루룩 먹는 사장. “으어~ 시원하다” 하는 소리를 낸다. 민서는 과자 섹션을 구경중인 민준을 붙잡아 편의점 구석 의자에 앉아있게 한다. 민준도 힐끗 사장을 본다.

- 일하는 몽타주
- 계산하는 민서
- 물건 정리하는 민서
- 민준이 자꾸 돌아다녀 주의를 주는 민서(눈치가 보인다)
- 민준이 귀찮은 표정의 사장

(Cut to) 편의점 안 의자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는 민준. 점심시간이라 편의점 안은 손님들이 제법 많다. 민준의 옆에서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는 청년들이 보인다. 민준의 테이블 자리 위에는 도시락, 책, 장난감들이 널부러져 있다. 청년들에게 말 걸고 있는 민준.

딸랑- 문이 열리며 사장이 들어온다. 정신없이 계산중인 민서. 사장은 쪽 다시 편의점을 한번 돌아보는데 민준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훑 본다. 제 집처럼 어질러놓은 것이 못마땅하다.

사장 민서야. 내가 계산할테니까. 동생 좀 어떻게 해봐바. 이거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에 있게 하는거 아닌 것 같아.
민서 (당황) 예..? 지금 어떻게..
사장 몰라. 친구한테 좀 봐달라거나. 하여튼 여긴 아니야 진짜. 난 애도 짖어해~

민서, 반강요로 민준의 짐을 챙겨 편의점을 나선다. 답답한 민서의 표정.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은 “누나 어디가” 등의 말만 하며 쫓아온다.

#7. 실외. 편의점 앞 길-공원. 낮

한손엔 민준의 손을, 다른 손엔 민준의 가방을 들고 나온 민서. 몸을 돌려 집 쪽으로 향하려다 말고 우뚝 멈춰선다.

민준 누나아 어디가
민서 민준아. 집엔 가면 안돼. 누나 일 끝나면 같이 가야돼.
민준 응..
민서 일단..

주위를 둘러보는 민서. 편의점 앞 공원이 눈에 들어온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민서.

-공원 안

민서, 계속 편의점을 쳐다보며 공원에서 이리저리 움직인다. 편의점 창문에서 잘 보이는 위치를 잡는 중. 바로 앞 벤치를 발견하고 민준의 가방을 내려놓는다. 다시 편의점 쪽을 보니 편의점 창문에서 잘 보면 이 벤치가 보일 것 같다.

민서 민준아. 여기있으면 누나가 민준이 보이거든?
민준 (고개 끄덕)
민서 누나 일 끝날때까지 여기서 놀고있자.
민준 (공원을 둘러본다)
민서 어디 땐데 가면 안돼. 여기 꼭 있어야돼. 누나 보이는데

민서, 계속 편의점에 두던 시선을 민준으로 향한다. 민준은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민서도 시선을 옮겨 그제서야 공원 전체를 살핀다.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은 공원은 약간 지저분하다.

벤치 옆쪽 정자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몇이 화투를 치고 있다. 다른 쪽 벤치에는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명이 어울리지 않은 썬글라스를 낀 채 지팡이에 손을 얹고 앉아 있는데 지팡이는 끝이 꼬불꼬불해서 쉽게 보지 못한 이상한 지팡이다.

또 다른 쪽에는 둑자리를 깔고 정자세로 앉아 있는 50대 아저씨가 있다.

미서와 시선이 마주치자 아저씨가 이리 오라는 듯 손을 흔든다. 불안한 미서.

민준 저기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

민준이 건너편 놀이터를 가리킨다.

민서, 놀이터 위치를 보니 평의점 창문에서 보이지 않을 것 같다.

민서 응... 근데 놀거면 자주 벤치 돌아와서 누나 얼굴 보고 확인하고 다시 가서 놀고 해야되.

민준, 신나서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민준을 제대로 붙잡고 높높이를 맞춰 말하는 미서.

민서 민준아. 누나 말 잘 들어. 여기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 하지 말고 이 상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응? 이해했지?

민주 계속 고개를 끄덕인다.

민서 저기 창문 보이지? 편의점 창문. 저기로 누나가 자주 내다볼테니까. 민준이
도 꼭 창문으로 누나 자주 쳐다봐야돼!

민준 고개를 끄덕끄덕이고는 놀이터로 달려간다.
다시 한 번 공원 사람들을 살펴보고는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민서.

#8. 실내. 편의점. 저녁

-일 몽타주
-자주 창문으로 벤치를 보는 민서
-놀이터에서 놀던 민준도 자주 벤치로 와 누나를 본다
-서로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모습

딸랑 문이 열리며 아저씨 손님(50대)이 들어온다. 커다란 가방을 바닥에 탁 내려놓는데 병들
이 묵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소주병 100개를 모아와 돈으로 바꾸려는 아저씨. 하나
하나 세느라 시간이 걸리는 민서.

도중에 온 손님들 계산도 해주고. 아저씨는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다.
겨우 돈으로 바꿔주고. 병을 처리하고. 다시 창문 앞으로 가 살피는 민서.
동생이 보이질 않는다. 딸랑 손님 들어오는 소리에 다시 캐셔 앞으로 간다.

문이 열리며 난닝구 바람의 청년 손님(20대)이 하나 들어온다. 뒤따라 들어오는 캠코더를 든
다른 남자(20대). 난닝구 손님이 엉덩이를 부여잡으며 물건 정리를 하던 민서에게 외친다.

난닝구 손님 화장...!! 화장실!!!
민서 아.. 저희 화장실이 없..
난닝구 손님 크흡!!

손님이 갑자기 라면 국물 통을 열더니 바지를 벗고 똥을 쌌다. 황당한 상황에 어쩔 줄 모르는
민서. 같이 들어온 캠코더를 든 남자가 박장대소를 하며 이 광경을 촬영한다.

난닝구 손님 (캠코더 화면을 향해) 행님들! 저 했습니다!! 좋아요 빨리 놀려주세요!
민서 아니 지금 뭐하는거예요!!

***진상손님으로 너무 오버스러운가?? 그렇다면 토하는 손님으로 바꿀 것

(Cut to) 뒷정리 끝낸 민서. 창문 앞으로 가 벤치를 보는데 동생이 안 보인다. 한참 창문 쪽에
있으며 동생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딸랑 문이 열리며 야간 알바생이 들어온다. 민서는 반가
운 표정으로 앞치마를 빠르게 벗는다.

#9. 실외. 공원-근처. 밤

벤치로 달려온 민서. 민준의 가방만 놓여 있다.
얼른 놀이터를 살펴보는데 놀이터에도 아무도 없다. 당황한다.

-정자의 할머니들에게 물어보는데 고개를 젓는다.
-돛자리 아저씨는 그대로 그냥 앉아 있다. 물어보는 민서.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래를
아는데 오천원이 아까운가?” 하는 이상한 말을 한다.
-정신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민준아! 하고 부른다.

(시간경과) 가로등 불이 깜빡 깜빡인다.
입을 꾹 다물고 터벅터벅 걸어 공원으로 들어오는 민서.
벤치에 민준의 가방과 장난감을 내려다본다. 곧 울 것 같은 표정.
그때.

민준(E) 누나!!!!

민준의 소리가 뒤에서 들려온다.
휙 뒤를 돌면, 민준이 한복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다.
뛰어오는 민준. 민서에게 안긴다.

민서 누나가 여기 있으랬잖아!!!!

민서, 민준에게 외치며 민준을 품에서 떼는데 민준의 얼굴 여기저기가 얹어맞았다.

민서 (놀라며) 뭐야? 누가 이랬어?
민준 (어른스러운척, 그러나 분한 목소리) 싸울 가치도 없는 애들이야
민서 누구랑 싸운건데!
민준 할머니가 혼쭐을 내줬어.

민준, 할머니를 쳐다본다. 민서도 할머니를 쳐다보고.
할머니는 여전히 안 어울리는 썬글라스를 낀 채 이들을 보고 있더니...
휙 뒤돌아 지팡이를 짚으며 이들에게서 멀어진다.

민준(E) 할머니가 다 때려눕혔어!

멀어지는 할머니를 보는 민서.

#10. 실내. 집-방. 밤

민준은 자고 있고, 민서는 종이에 뭔가를 그리고 있다. 콩콩콩. 갑자기 방문 두드리는 소리.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민서, 얼른 마무리해서 방문을 빼꼼 여는데 방문이 훑 열린다. 패거리 1,2가 방문 앞에 서 있다. 거실에는 여전히 늘어져있는 화니 패거리들이 보인다.

패거리2 (종이를 보면) 이게 전부 맞지?

민서 고개를 끄덕이면.. 패거리1,2가 거실로 가서 화니에게 종이를 넘긴다. 종이를 살펴보는 화니. 민서는 방문 사이로 화니를 보고 있다.

화니	야. 너 하나라도 빼먹었음 죽을줄 알아. 진짜.
민서	(고개 끄덕)
화니	다 쓸어와서 쟁여놓자!
패거리3	거기 사장 패 잘생겼는데. 푸흡
패거리1	야 그 사장 완전 개백수에 마마보이잖아ㅋㅋ

화니와 패거리들, 시끌벅적 떠들어댄다. 문을 탁 닫는 민서. 무릎에 고개를 파묻는다.

#11. 실내. 편의점. 낮

창문 밖으로 공원을 내다보는 민서. 민준이 썬글라스 할머니 옆에서 놀고 있다. 민서는 시계를 본다. 사장은 어슬렁거리다가 퇴근할 준비를 한다.

사장 아 오늘은 진짜 끝까지 있을라 했는데... (씨익) 약속이 또 생겨버렸네~
후후.. 야간 올 때까지 잘 하고 있어~

민서 네..

사장 어제 cctv 돌려보니까 왜 그렇게 창문을 왔다갔다해?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캐셔에 붙어있고..

민서 네..

그때 민서의 카톡이 울린다. <사장 갑냐?>는 화니의 카톡.

사장 근무시간에 폰 자꾸 보지 말고!
미서 네..

사장 가방을 들고 나간다.

면서, 카톡을 보낸다. “네..”

(Cut to) 딸랑- 소리와 함께 들이닥치는 화니 패거리. 사복을 입고, 다들 모자를 눌러쓰고 있다. 패거리 1,2,3은 들어오자마자 민서를 위협하며 몇 대 때린 후 캐셔 뒤에 묶어놓고, 가방에 술과 과자들을 쓸어담는다. cctv 위치를 알고 있어 다들 얼굴이 안 보이게 일사분란하게 움직

인다. 가방에 음식들을 다 넣고는 끄끅대며 나가는 패거리.

화니 믿서야 땡큐! 이따 봐~

캐셔 뒤에서 묶여 있는 민서에게 인사하고 떠나는 화니 패거리.

(Cut to) 경찰이 와 있는 편의점. 사장과 대화 중이다. 민서는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다. 경찰이 민서에게 다가온다.

경찰	일단 학생은 조사 끝났으니 돌아가고..
민서	(눈을 내리깔고) 네..
경찰	딱 봐도 너무 만만하네 사장님. 얘가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얼굴은 완전 중학생처럼 보이잖아. 심지어 초등학생이라도 밀겠다. 이런 얘기 같은 알바생이 있으니 딱 쳐들어오기 좋지..
사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진짜 요즘 애들이 무서워~
경찰	그래도 다행이잖아? 금고 안 털린게.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강도짓까지 한다니까요~

경찰, 호들갑이 많은 편이다. 사장은 경찰의 말을 듣다가 민서에게 말한다.

사장 민서. 괜찮아? 얼른 병원 가봐.. 놀랐겠다 야. 병원비로 쓰고.

사장, 오만원을 지갑에서 꺼내 민서의 손에 쥐어준다.
얼떨결에 받은 민서. 입을 꾹 다문채 앉아있다가..

민서 죄송합니다..
사장 니가 뭐가 죄송해. 더 안다친 게 다행이지. 얼른 들어가봐.

미서, 꾸벅 인사하고 얼른 나간다.

#12. 실외. 공원. 저녁

밀서, 터덜티덜 걸어 공원으로 들어간다. 밀숲과 할머니가 있는 베치로 향하는데...

“야! 야! 와!” 하는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들어보자, 동생 또래의 남자아이들 서너명이 “거지 새끼야!” 하면서 미즈을 쭈아 뛰고 있다. 미즈을 도망을 다니다가 한며느리 뒤에 숨는다.

“거지 할머니 뒤에 숨나?” “이 빠것야!” 하면서 독을 던지는 아이들

미선가 한가 나이로 그들에게 다가가려는데

한머니가 지팡이를 희드러 둑드려 막아낸다. 멀찌 셔는 미서

독을 던지던 아이들은 놀라며 독자은 멈춘다

할머니, 앞에 떨어진 돌을 하나 주워들더니 지팡이로 턱 때리고, 그 돌은 날아가 남자아이1의 배를 맞춘다. “아악!” 하고 배를 으켜지는 남자아이1

할머니는 다른 돌 하나도 줍더니 또 다시 지팡이로 돌을 날린다.

“아!!” 하고 또 배를 움켜쥐는 남자아이2.

할머니, 마지막으로 돌을 줍는데 남자아이3은 다른 애들보다 덩치가 크고 나이도 좀 있어 보인다. “이씨!!”하며 할머니를 향해 달려오는 남자아이3. 할머니를 덮치려나 싶은데 할머니, 지팡이를 턱탁 휘둘러 남자아이3의 머리, 어깨, 배를 가격해 뒤로 팍 밀려 넘어지게 만든다.

결국 쓰러져있다 주춤주춤 일어나 다 같이 도망가버리는 남자아이들.

할머니 뒤에 숨어있던 민준. 아이들이 가고나자 “만세!” 하고 손을 위로 뻗는다.

민준 할머니 짱!!!

민서, 이들에게 다가간다. 반가워하는 민준.

민서는 선글라스 낀 할머니를 쳐다보며 묻는다.

민서 방금 뭐하신거예요?

할머니 (앞만 본 채) 혼날 것들은 혼나야하는 것이제.

#13. 실내. 집. 밤.

삐삐삐 - 도어락이 해제되고, 민준이 다다다 방으로 들어간다. “여 왔느냐!!” 축제 분위기의 집 안. 패거리 1,2가 신발장까지 나온다. 다들 술에 취해 휘청휘청거린다. 신을 벗은 민서를 끌고 가 거실에 앉히는 패거리들.

화니 한잔 해야지! 도움이 컸는데!

화니, 소주 한 병을 민서 앞에 턱 놔둔다. 민서는 무표정으로 이들 앞에 앉아 있다.

패거리1 야 빼쳤니?

패거리2 우리 살살 때렸잖아 왜 그거 가지고 빼져~

패거리3, 민서 앞의 소주병을 땠다.

화니 짠짠!

병나발로 짠을 하는 패거리들. 패거리3이 소주병을 민서 손에 쥐어준다.

화니 마셔 얼른 마셔들.

민서 술을 안 마시려 하는데 패거리3이 얹지로 마시게 한다. 웨엑- 뺏어내는 민서.

화니 (정색하며) 잊은거 아니지? 너 지금 우리가 신고하면 곧장 동생이랑 헤어지고 위탁가정행이야.

민서, 화니를 노려본다.
용은 조용히 술 마시다가 탁 병을 내려놓는다.

용 캐셔에 돈 쌓이는 날은 언제냐?

용을 쳐다보는 민서. 용이 씨익 웃는다.

#14. 실외. 공원. 밤

일 마치고 벤치로 걸어오는 민서. 쿵쿵쿵. 다가오는 발걸음이 거칠고 무겁다.
민준은 가방을 챙기고 있고,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 있다.

민서 할머니!

할머니는 민서를 쳐다보지 않는다.

민서 어제 그 지팡이로 하신 거 뭐예요?
할머니 혼나야 될 애들이 혼난 것이라니까.
민서 저도 가르쳐주세요.
할머니 ... 배워서 뭘하게?
민서 혼날 애들이 또 있어서요..

할머니, 아무 말이 없다.

민서 ...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할머니 나쁜 것들은 어딜가든 있는 법이지.

할머니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버린다.
할머니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치는 민서.

민서 갸들은 진짜 나쁜 애들이라니까요!

할머니, 우뚝 멈춰서더니..

할머니 그런 것들은 세상에 넘치고 넘친다니까.
마음가짐부터 달리해야 배울 수 있을 것이야.

할머니, 다시 멀어진다.

#15. 실내. 편의점/공원. 낮/밤-몽타주

-1만2천원을 동전으로 계산하려고 동전 주머니를 계산대에 뿐린 손님 때문에 동전을 세고 있는 민서

-술취해 난리부리는 진상 손님 쫓아내는 민서

-틈틈이 패거리들이 돌아가며 손님처럼 와서 계산하며 계산대를 살펴보기도 하고, 안쪽 금고를 힐끗 거리기도 하는 등 위협한다

-민서는 계속 할머니에게 부탁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거절하는 모습.

#16. 실외. 공원. 밤

민준이 가방을 챙기고 있고, 민서는 가만히 서 있다. 아무 말 없는 민서.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난다. 이들에게서 멀어지려는데...

민서 진짜 좀 도와주시면 안돼요?

할머니, 계속 멀어지고 있다.

민서 주말에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기술 좀 가르쳐준다고 뭐 닳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머니, 멈춰선다.

할머니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은가. 마음가짐이 문제라했지.

민서 도대체 제 마음가짐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건데요?

할머니, 지팡이를 탕 바닥에 내리친다.

할머니 나한테 덤벼보아 그럼.

민서, 할머니의 말이 뜬금없어 잠깐 머뭇거린다.

할머니 덤빌 베짱도 없으면서 어딜 뭘 배우겠다는것이야

민서, 주먹을 꽉쥔다. “아아아!”하고 외치며 할머니에게 달려든다. 팔을 마구 휘두르는데 민서의 공격은 다 지팡이에 막혀버린다. 그래도 계속 덤비는 민서. 할머니는 너무나 쉽게 계속 공격을 제압한다.

노란 전봇대 불이 깜빡깜빡 거린다. (#1의 장면이 반복된다)

민서는 계속 할머니의 지팡이에 의해 뒤로 퉁겨나가 버린다. 씩씩대면서도 다시 계속 덤비는 민서. 그러나 또 다시 밀리고... 결국에는 민서의 팔을 지팡이 부리로 꺾어버리는 할머니. 민서는 팔이 뒤로 꺾이다가 탕 퉁겨나가 다시 뒤로 넘어진다.

할머니 이 밖에 안 되는가?

할머니, 탁탁탁- 지팡이를 짚으며 넘어져있는 민서 가까이로 걸어온다. 긴 머리를 산발한 민서의 얼굴에 분함이 가득하다. 원망스런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보는 민서.

민서의 눈이 글썽글썽, 눈물이 곧 쏟아질 것 같다.

민서 (외침) 계속 !@#\$%^\$\$ 말이에요!!!

공원 앞 큰길의 자동차가 빵!!! 클락션을 울리며 지나가 민서의 중간 말이 묻혀버린다.

할머니 메라고?

민서, 눈에 글썽글썽 맺힌 눈물을 쓰윽 닦으며 다시 외친다. 분한 표정 한가득.

민서 계속 질 순 없다고요!! 나도 강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민서의 말에 할머니가 잠깐 서 있는데 씨익 미소가 스친다.

휙 뒤돌아 멀어지기 시작하는 할머니.

할머니 내일부터 알켜줄테니 마음 단디 먹고 와.

얼빠진 민서의 표정.

탁탁탁- 떨어지는 할머니의 지팡이 소리.

#17. 실외. 공원. 밤

몽타주와 이들이 하는 대화가 나레이션처럼 계속 된다.

며칠간의 연습이라 옷이 매번 조금씩 바뀐다.

-할머니를 따라 쿵푸 자세부터 배우고 있는 민서. 민준도 옆에서 놀면서 따라한다. 쿵푸 자세를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지팡이를 쥐고 있다/ 근처의 나무 아래에서 짧은 나뭇가지 하나 주워다 민서에게 주는 할머니.

민서(E) 이게 뭘까요?
할머니(E) 손에 지팡이가 들리면 이제 케인푸가 되는 것이지..
민서(E) 그게 뭐냐고요.
할머니(E) (어이없음) 이 할매도 아는 영어를 모르는가? 지팡이 쿵푸라고. 이 돌머리야.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는 할머니. 현란하다. 민서에게 건네주는데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한다.

할머니(E)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어야 응용이 가능한 것이야.
민서(E) (볼멘소리) 이거 휘두르는 게 어떻게 응용되는데요?

할머니, 의장대가 총 돌리듯 지팡이를 휘두르다가 그 동작 그대로 민서를 향해 휘둘러보이는데 그 휘두름이 사람을 향하니 위협적인 동작이 된다.

-돌을 하나 들어 배드민턴 치듯이 지팡이로 탁 쳐서 날리는 할머니. 할머니는 쉽게 돌을 날리는데 민서는 돌 하나도 날리지 못하고 돌이 그냥 떨어져버린다. 분한 민서. 민준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고 야구방망이 들 듯 지팡이를 들고 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해보지만 계속 돌에 맞기만 한다.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민서의 모습. 계속 실수를 하고 할머니에게 머리, 어깨, 배를 얻어맞지만 계속 시도한다. 짜증나서 바닥에 널부러진채 발을 차다가 또 별떡 일어나 다시 할머니를 공격한다.

#18. 실내. 편의점. 낮

일하는 민서의 모습. (인벤토리, 정리, 쓰레기 치우기 등)
창 밖 공원을 보면 민준이 할머니에게 케인푸를 배우는 시늉을 하고 있다.

(Cut to) 화장실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민서.
갑자기 나타난 화니 패거리가 민서를 벽에 탕 밀어붙인다.

화니 야. 오민서. 너 요즘 웬케 늦게 들어와? 재미가 없잖아.

민서, 아무말 않고 가만히 있는데.

화니 ... 내일 알지...? 동생이랑 헤어지고 싶음 잔대가리 굴려보던가.

화니, 민서의 볼을 툭툭 건드리다가 찰싹 때린다. 훅 돌아가는 화니. 패거리 1,2,3도 똑같이 민서의 볼을 한 대씩 툭툭 찰싹 찰싹 때리고 떠난다. 민서, 손을 꽉 쥐고 있다가 이들이 사라지자 주먹을 품다.

#19. 실외. 공원. 밤

할머니의 공격을 지팡이로 거의 다 막아내고 있는 민서. 혁혁 대면서도 신난 표정.

할머니 자 이제 공격해봐.

할머니의 말에 민서가 할머니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곳 저곳을 찌르는데 다 막아내는 할머니. “하압! 합!” 하는 소리가 계속 된다. 속도가 점점 붙으면서 지팡이 휘두름이 점점 빨라지고... “하얏!!!” 하고 소리치며 민서가 지팡이를 내리쳤는데 할머니 어깨를 제대로 맞춘다. 탁하고 쓰러지는 할머니.

민서 할머니!!

하면서 할머니에게 달려간다.

민서 죄송해요!!!

할머니 죄송하긴. 속으론 웃고있지? 드디어 처음으로 저 할매를 쳤구나. 다 보인다.

민서 헤헤 웃는다.

(Cut to) 쌍화차 병뚜껑을 따서 할머니에게 건네는 민서.

민서, 민준, 할머니 셋이 벤치에 앉아 음료를 마신다. 말이 없는 셋.

할머니 내일이라고?

민서 (고개 끄덕)

민서 할머니가 몰라서 그래요~ 그 일진 언니는 진짜 맨날 정학먹고 학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하고, 그 언니 남자친구는 이미 고3인데 아예 학교 그만둔지 오래고 심지어 소년원도 갔다 온 오빠래요.. (갑자기 긴장된다) 하...! 어떡하지..

미서 할 수 있겠죠?

미션왕 할머니 잠시 말이 없다

마서 학머니는 근데 이런거 어디서 배운시거에요?

학머니 아버지가 악취주성지 쿠풀 마스터성거리를

미서 풀홍 (비우을) 그럴게 진짜 있어요?

할머니 세상에 나쁜 놈들은 너무나 많고 그놈들을 다 이길 순 없으니 내가 강해져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케이풀을 갈겨주셨지. 그래서 이 할매가 6.25도

살아남고 위안부로도 안 끌려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야.
민서 ... (진중해진다)
할머니 너도 잘 새겨들어. 이기려는 마음은 쓸모없는 것이야.
민서 ...왜 그게 쓸모없어요?
할머니 삶은 원래 불공평하고 나쁜놈들은 끊임없거든. 매번 이길 순 없어.
민서 ...맞아.. 불공평해요.. 안그래도 힘든데 왜 이렇게 괴인건지..
할머니 그니까 단순히 내가 강해지고, 그래서 지지만 않으면 돼.
그게 세상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이야.

할머니, 보자기 하나를 민서에게 건넨다.

할머니 할매는 나이가 많아서. 뭐든 다 구식이야. 유치해도 이해해.

건네받아 풀어보는 민서. 한복이 들어있다. “우와!” 외치는 민서.
할머니가 자신의 지팡이를 건넨다.

할머니 꼬일수록 더 강해지는것이야.

#20. 실내. 편의점. 낮

사장이 가방을 들고 창고에서 나온다.

사장 이놈의 무능한 경찰들.. 찾지도 못하면서 웰케 불러대는지..
다녀올게! 잘 하고 있어!
민서 네..

사장이 나가고... 카톡 울린다. <사장 나감?>
민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는 탈의실로 들어간다.

(Cut to) 편의점 밖

편의점 문을 걸어 잠그는 민서의 손.
문 앞에 뒤돌아서면, 한복으로 갈아입은 민서의 모습.
왁자지껄하며 이번엔 미세먼지 마스크까지 쓴 화니 패거리들이 문으로 다가온다. “응?” 하고
패거리중 하나가 민서를 발견한다.

패거리1 하하하하하! 너 뭐하냐? 웬 이상한 옷을 입었대?

패거리들 민서를 보고는 비웃는데... 용이 정색을 한다.

용 우리 계획 몰라? 문 앞에서 뭣하는거야 지금.

민서, 지팡이로 갑자기 탁탁탁탁 패거리들의 머리를 한 대씩 친다. “아!” 외치는 패거리들.

민서 **싸우자!! (다른 대사..)**

민서, 공원 쪽으로 다다다 달려간다. “씨발 저년 미쳤나?”면서 패거리들이 민서를 쫓아간다. 용과 화니가 어이없는 시선을 주고받는다.

#21. 실외. 공원. 낮

먼저 달려온 패거리 1,2,3. 민서가 쿵푸 포즈를 잡는다. 어이없는 패거리 1,2,3은 서로 쳐다보며 웃는다.

공원 구석 벤치에는 민준과 할머니가 앉아있다. 민준이 “누나!” 하면서 달려오려 하자 할머니가 민준을 잡는다. 둋자리 할아버지는 졸다 깨서 이들을 구경하기 시작한다.

패거리1 **씨바 (마스크 벗으며) 지금 뭐하는거... 얹!!**

팟- 하고 패거리1의 이마에 돌맹이가 박힌다. 뒤로 쓰러지는 패거리1. 패거리 2와 3이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하는 표정으로 민서에게 다가온다. 민서, 돌맹이를 하나 더 주워든다. 지팡이로 패거리2를 향해 돌을 날린다. 배에 맞고 쓰러지는 패거리2. 패거리 3은 “씨발 뭐야?” 하면서 민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한방 치려는데 민서가 획 허리를 굽혀 피하면서 돌맹이를 집어들고는 빠르게 뒷걸음질을 쳐 거리를 둔다. 탁- 돌을 날려 패거리3도 쓰러뜨린다. 환호하는 둋자리 할아버지.

용과 화니가 도착한다. 셋이 쓰러져 있는 걸 본 화니.

화니 **뭐야? 씨발 뭐한거야 지금?**

화니를 보며 쿵푸 포즈를 취하는 민서. 화니가 어이없는 비웃음을 날린다.

화니 **뭐. 무술이라도 배웠냐 그새?**

민서, 덤비라는 손동작을 취한다.

화니 **미친.. 뭘 따라하는거야 지금..**

화니, 민서에게 달려든다. 일반적인 싸움에서 보듯 머리끄댕이를 잡으려는데 민서가 화니의 손을 지팡이로 획 걸더니 꺾어버린다. 팔이 뒤로 꺾여 아파하는 화니. 민서가 지팡이를 풀어주자 나가떨어진다. 다시 덤벼드는 화니. 이번엔 발길질을 하려 하는데 민서가 지팡이로 다막아내고는 곧장 화니의 무릎, 정강이를 지팡이로 탁탁탁 정곡을 찌르며 공격한다. 아악 소리를 내며 주저앉는 화니. 용에게 도움을 청한다.

화니 오빠...!!

민서, 그런 화니가 어이없다.

민서, 화니의 배를 탁! 치자 화니가 배를 불잡으며 고꾸라진다.

휙 용을 쳐다보는 민서. 용은 껌을 짹짜 찝더니 탁 주머니 칼을 꺼낸다.

민서, 긴장한 듯 땀을 닦고 지팡이를 다시 제대로 쥔다.

포즈를 다시 취하고, 덤비라는 손동작을 한다.

달려오는 용.

칼과 지팡이가 쟁쟁 몇 번을 부딪힌다.

민서가 용의 공격을 다 막긴 하는데 체격차에 힘이 밀린다.

빠르게 공격해오는 칼이 민서의 볼 가까이를 스친다.

민서의 왼쪽 머리카락이 빠르게 휘둘러지는 칼에 사라락 잘려 단발이 된다.

앗! 하고 놀라는 민서.

용이 씩 웃으며 다른쪽 머리도 훑 잘라버린다.

피해보지만 한발 늦어 민서의 오른쪽 머리도 언밸런스한 단발로 잘려버린다.

민서는 탁탁탁 지팡이로 칼을 막으며 뒷걸음질치고..

자연스레 공원의 운동기구들 쪽으로 가게 되는 용과 민서.

계속 칼과 지팡이가 맞부딪히는데 운동기구들을 사이에 놓고 쟁쟁거리게 된다.

이런 저런 운동기구를 같이 맞추며 쟁쟁거리다가 이들은 상체근육을 푸는 동그란 손잡이 돌리기용 운동기구를 사이에 놓고 공격과 방어를 하게 된다.

힐끗 운동기구를 본 민서. “하압!” 고함을 지르며 지팡이를 휙 빼고 동그란 운동기구의 핸들을 있는 힘껏 돌린다. 칼을 잡고 공격하던 용의 팔이 운동기구 사이에 끼게 된다. “악!” 하고 외치는 사이 민서가 얼른 용의 뒤로 가 지팡이로 용의 엉덩이를 찔러버린다.

용 흐협!!!!

팔이 빠졌지만 이제는 엉덩이를 불잡고 제대로 서지 못하는 용. 민서가 다시 앞으로 가 지팡이로 용의 머리부터 어깨, 배, 가랑이까지 탁탁탁 한 대씩 치고... 용은 뒤로 쓰러져버린다.

용이 쓰러지면.. 탁탁 지팡이 가격 포즈를 멋지게 유지한 민서의 모습이 카메라 정면에 보여진다. 민서, 지팡이를 탕! 하고 바닥에 내리 꽂는다. 이제 단발머리가 찰랑거린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민서 꼬일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여.

Cut to Black

-The End-